

어린이 책꽂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사람=우주의 탄생에서 부터 인류의 등장 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림책, 17년간에 걸쳐 완성된 이 책은 풍부한 과학정보와 친근한 그림으로 사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준다. <웅진주니어·1만원>

▲짱구 영어사전=영동하고 재미만 점인 짱구가 생활속에서 겪는 이야기를 영어속담, 속어, 회화편으로 나눠 엮은 만화책이다. 핵심 단어, 활용회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속어 등 초등학교생들에게 유익한 193가지의 표현이 소개돼 있다. <서울문화사·8천500원>

▲파벨 아저씨의 개=외국인 노동자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쟁을 피해 먼 나라에서 온 파벨아저씨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르쳐준다. <어린이 작가정신·7천500원>

▲마리 퀴리는 두차례 노벨상을 수상한 여성과학자 마리 퀴리의 일대기를 다룬 위인전. 여자는 편견에 맞서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받기 까지 끝없는 연구와 실험에 몰두한 마리 퀴리의 집념이 감동을 준다. <다섯수레·9천원>

▲음악의 역사=고대부터 중세, 르네상스와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천년동안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음악이야기.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으며, 음악가들은 어떤 생각과 활동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큰북·작은북·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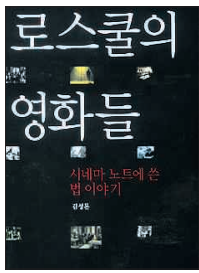
영화속 法 이야기 들춰보다

로스쿨의 영화들 김성돈 지음

올 초 선보인 설경구 주연의 영화 '그놈 목소리'는 개봉 당시 많은 논쟁거리를 낳았다. 16년전 일어난 어린이 유괴사건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지만 '그놈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소시효'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소재로 한 '그때 그사람들'은 가위질 된 채 상영돼 '사건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 영화 '괴물'을 통해서 미군의 환경범죄였던 '맥팔랜드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소장 법학자 김성돈(성균관대) 교수가 펴낸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는 30여편의 영화를 소재로 우리 삶을 알게 모르게 구성하고

'그놈 목소리' '닉슨' '선택' 등 영화 통해 본 공소시효·도청·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순된 법과 제도 가운데 단 한가지 만이라도 바꾸자'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고 가장 대중적인 장르인 '영화'를 그 매개체로 삼았다.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한 대중적인 영화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또 '닉슨' '레인 메이커' 등 오래된 영화들도 있지만 '괴물' '협박도' '타짜' '비밀한 거래' 등 최근작들이 많은 점도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저자는 '그놈 목소리'가 제시한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국가 기관에 의해 행해진 범죄의 경우에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를 아무런 짓고 치유하는 법적·사회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사무실을 도청한 이른바, '위터게이트 사건'으로 결국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만 닉슨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닉슨'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본다.



도박을 다룬 영화 '타짜'를 통해 저자는 도박 중독은 사회 윤리적인 비난을 전제로 한 형벌 대신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기부 X파일' '초원복집 사건', 그리고 최근 강동순 방송위원의 술자리 녹취록 사건 등 '도청'을 둘러싼 사건들은 2007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도청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도청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통신 비밀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게 옳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밖에 '선택'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짚어보고,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과 '용서받지 못한 자'를 통해서도 소수 동성애자 문제와 양성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각 영화 소개를 말미에는 관련 법과 정책, 해외 사례 등 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움말을 실었으며 책 끝에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나남출판) 등 '법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는 책들'을 적어두었다.

같은 출판사에서 개정증보판이 나온 안경환(서울대 교수) 국가인권위원장의 '법, 영화를 캐스팅 하다'를 함께 읽어도 좋다. '이카루스의 날개로 하늘을 향해 날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돼 많이 읽혔던 책으로 45편의 영화가 실려 있다. <호형출판·1만1천원> /김미진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안나 레이드 '사면의 코트'

행어 민족을 들먹이면 국수주의자 또는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치부될 정도로 탈민족주의의 바람이 거세다.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오죽하면 한국의 진보적인 단체로 손꼽혀온 민족문화작가회의가 '민족'을 떼자고 나서고 있겠는가.

하지만 낭만적 외화의 장면 또는 '유형의 땅'으로 각인된 바 있는 시베리아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나면, 민족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16세기 후반 이후 러시아화를 피할 수 없다고 하나, 시베리아는 여전히 30여개 소수민족의 땅이다. 숨을 내쉬는 순간 얼어붙은 숨결이 소나기처럼 바닥에 떨어져 내린다는 동토(凍土)의 표층을 걷어내면 시베리아 사람을 뜻하는 '시비트야키'의 역사와 흔이 그 심층에 여전히 살아 있다.

최근 한민족의 발상지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칼 호수'나 그 정적인 뿌리로서 사면 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시베리아는 지배민족인 슬라브 민족만의 땅이 아니다. 한민족 역시 오랫동안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가혹한 생존조건을 싸우다가 남해에는 민족 중의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모교 사냥에서 출발한 시베리아 원주민에 대한 러시아 차르 체제의 정복과 통치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매독과 천연두 등 유럽적 질병은 소수민족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가져

민족 정체성의 원동력 '사면'



왔다. 특히 스탈린의 공포정치에 사면들을 인민을 착취하는 자본가로 내몰며 총살하거나 헬리콥터 밖으로 내던지며 각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탄압했다. 그러나 '사면의 코트(미다스북스)'의 저자 안나 레이드는 한 알타이 전문가의 입을 빌려 사면은 온갖 박해에도

그 명맥이 비밀리 유지돼 왔으며,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라던가 민족적 정체성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근래의 유행담들에 반격을 가한다. 외관이나 언어뿐만 아니라 수줍어하는 태도, 이국적인 명절음식, 대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 등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각 소수 민족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대사는 어떠한가. 오늘날 심오한 생태학적 이해와 함께 당면한 인류 문명의 물질적 진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샤머니즘을 스스로 배척하고 미신해오지 않았던가. 일제 치하 또는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탄압받은 것이 다른 아닌 샤머니즘이나 민속이었다는 사실은 무얼 입증하는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일제 또는 서구의 진보사관은 절대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억압한 결과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우리들 역시 한때나마 시비트야키처럼 랩츠는 걸어 다니고, 집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떠드는 생명체라고 믿어왔던 민족이다. 또한 샤머니즘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명 이전의 문화적 풍습이 아닌, 한 민족의 삶과 행위의 기반을 제공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케 한 원동력이다. 따라서 저자의 말대로 모든 것이 서구화된 오늘날 한국인의 심층 무의식 그 어디가에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면의 코트가 고스란히 걸려 있을지 모를 일이다.

임동환 <시인>



사물의 의인화 한 어른용 우화집

꽃미남... 카스파라비키우스 지음

책이 책을 읽고, 꽃이 꽃을 키우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인 리투아니아 출신 케스투티스 카스파라비키우스가 쓴 '꽃미남 화성인'의 굴욕'과 '낙시하는 물고기의 상상'은 우리 주변의 사물을 의인화해 일상 속에 숨은 삶의 진실을 알리는 어른용 우화집이다. 각각 36편의 이야기가 저자의 컬러 삽화와 함께 담겨있다. 저자의 상상력은 끝이 없다. 아이스크림은 산타 할아버지의 침자로 등장하고, 꽃미남인 화성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친구를 거울 삼아 꽃을 키우는 화분들, 호기심 많은 물고기가 겪었을 성장통, 냉장고 선생과 고양이 아가씨의 로맨스 등 주변 사물들에 생명을 부여한다. 저자는 화를 이기지 못해 연필을 던진 뒤 쓰레기통을 보고 민망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동안 구박받고 무시당했던 작은 것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이자 나의 엄한 비난을 묵묵히 감내해주는 주위 물건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라고 말했다. <예담·각 권 8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병자호란, 그 치욕의 47일

남한산성 김훈 지음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도망하고, 47일 간의 고립 생활 끝에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은 역사적 사실은 별로 들추고 싶지 않은 치욕의 역사다. 소설가 김훈씨가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설로 복원했다. 3년 만의 신작 장편소설 '남한산성'은 47일 동안 갇힌 성안의 무기력한 임금 인조 앞에서 벌어진 주전파와 주화파의 싸움, 불안한 조국의 운명을 두고 고초받는 민초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소설은 1636년 12월13일 청의 대군이 한양을 향해 진격 중이라는 소식을 받으며 시작한다. 9년 전 정묘호란 때와 같이 강화도로 가야할 것이었지만, 이미 그 길은 청군에 의해 차단된 뒤였다. 인조는 송파나무를 통해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삶은 치욕을 견디는 나날"이며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더럽혀지는 인간들이 아름답다"는 말로 치욕의 역사를 들춘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학고재·1만1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위성 412번 ■ 케이블 TV 광주 42, 60번, 나주 60번, 목포 59번, 담양 42번

CBS

영·혼을 사로잡는 힘

광주CBS TV

늘마다 감탄하세요
은혜와 감동이 쏟아집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

광주CBS의 비전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TV강단 매일 새벽 5시 30분 ~ 6시

월 허태호 목사 (새희망교회)	화 송재식 목사 (광주서림교회)	수 박은식 목사 (광주서현교회)	목 윤세관 목사 (광주계림교회)	금 이길수 목사 (광주예향교회)	토 리준기 목사 (빛과사랑교회)

TV강단 매일 오후 3시 5분 ~ 3시 35분

월 주연도 목사 (광주동성교회)	화 최학후 목사 (기장 광주영림교회)	수 손준기 목사 (하남은광교회)	목 김성원 목사 (광주중흥교회)	금 이상복 목사 (광주동명교회)	토 백주석 목사 (광주포도원교회)